

전 및 손해보험 위험관리업무에 꼭 필요한 한국화재안전기준(KFS ; Korea Fire Safety Standards)을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3개 화재안전기준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총 57개 기준(2,822쪽)을 제정·완료하였다.

손해보험회사 가족 자녀 견학

▶ 사원사 가족의 활동을 환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노동조합



대한화재 및 현대해상 직원 자녀 40명이 지난 2월 27일 연구원 견학에 나섰다. 연구원을 찾은 사원사 직원 자녀들은 홍세권 원장이 특별히 준비한 NFPA 어린이 화재안전교육 비디오를 보며 화재 시 피난요령을 배우고 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한 전기화재 시험을 지켜보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키웠다.

화재안전교육에 이어 화재경보기 및 스프링클러 시험실 등 각종 시험연구시설을 견학한 어린이들은 마지막으로 종합화재시험동 소화기 시험장에 모여 직접 소화기를 작동해 모형 화재를 진화해 보며 불의 위력을 실감하고 평소 화재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원사 직원 자녀들의 견학은 대한화재 노동조합의 제의에 의해 성사되었으며, 연구원은 앞으로도 사원사 직원 가족들의 연구원 견학을 통해 협회 알리기와 화재안전 마인드 보급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방재시험연구원,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품목 추가 지정

연구원은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지정 시험기관」 인정 시험품목에 '화염통과방지장치' 및 '압력진공밸브' 등 2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 받은 2개 품목 중 화염통과방지장치는 폭발성 혼합가스로 충만한 배관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폭발성 혼합가스가 존재하는 장소 전체에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장치이며, 압력진공밸브는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 내부의 압력을 적정 범위로 유지시켜 화재·폭발을 방지하는 밸브이다.

연구원은 지난 1988년 해양수산부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이래 그 지정 품목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선박용 소화기, 화재감지기, 방화문 등 총 30개 품목에 대한 국가 형식승인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방재시험연구원, 한수원과 원전화재방호계획 용역계약 체결

연구원은 지난 12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발전소화재방호계획서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총 20개 원자력발전소의 발화위험성 조사, 화재예방설비와 진압설비의 성능확인, 구조적인 방화설비 및 화재예방조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원자로의 안전정지능력을 확보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화재방호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인적자원 등 종합적인 화재안전계획 및 활동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일정은 10개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과학기술부에서 규정한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이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의 화재 안전성 증진 및 안전규제요건을 만족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방재시험연구원, 러시아선급(RMRS) 시험기관으로 지정

연구원은 1월 5일, 러시아 연방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선급(Russian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으로부터 국제해사기구(IMO) '화재시험절차 적용에 관한 국제기준(FTP Code)'의 Parts 1, 3, 4, 5, 6 등 5개 시험 분야에 대한 러시아선급



지정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 선박의 제조 및 수리에 사용되는 내장재, 방화문,

격벽 등의 완제품 및 재료를 수출하는 국내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은 물론, 그간 과도한 비용 및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에 소극적이었던 국내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선급은 영국의 로이드, 프랑스선급 등 다른 선급기관이 민간기관인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및 미국해안경비대(USCG) 업무 중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안전검사 등을 수행하는 러시아 연방 교통성 산하 정부기관이다.

이번에 연구원 국내 최초로 러시아선급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이제는 연구원의 시험성적서 제출만으로 러시아선급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관련 기업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재시험연구원, KS표시인증 지정심사의 업무범위 추가 지정

연구원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2004년 1월 16일자로 토건분야에 대하여 KS 인증심사의 업무범위를 2개 품목 추가 지정 받아 국가 표준화 사업의 활동영역을 확대하였다.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6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운용요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으로부터 2001년 3월 KS F(토건) 분야의 13개 품목에 대하여 최초로 지정심사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이번에 추가로 지정받은 품목은 KS F 4735(압출성형 콘크리트패널)

와 KS F 5660(폴리에스테르 흡음단열재)이다.

KS F 4735 압출성형 콘크리트 패널은 시멘트, 규산질 원료, 골재, 광물 섬유 등을 사용하여 진공 압출 성형한 제품 중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재, 도로 방음벽에 사용하는 패널에 대한 규정이고,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는 건축용 또는 복합 패널의 단열 및 흡음재로 사용하는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에 대한 규정이다.

방재시험연구원, 독일 선급 검사기준에 의한 선박용 화재탐지수신기 및 불꽃감지기 연구 착수

연구원은 (주)씨플러스와 독일선급(Germanischer Lloyd, GL) 검사기준에 의한 '선박용 화재탐지수신기 및 불꽃감지기의 성능평가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 연구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선박용 소방설비 생산업체인 (주)씨플러스가 선박용품 국산화개발의 일환으로 화재탐지수신기와 불꽃감지기를 개발,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독일선급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한 인증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1999년 독일선급으로부터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ne Organization)에서 정하는 선박용 구조재의 내화시험(IMO A.754)기관으로 지정되어 성능검사기술 발전에 공동협력을 하고 있다.

협회 업무담당자는 "이번 연구결과는 외국제품에만 의존하던 선박용 화재경보설비가 국내제품으로 대체되어 해외선박에 장착하는 기술발전의 계기가 됨은 물론, 성능평가기관으로서 선박용 화재경보설비의 국산화와 조선기자재의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선박용 소방설비 제조업체는 연구원의 인적능력 및 시험·연구설비를 활용함에 따라 해외선급 취득을 위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